

한국교회 평화선교사 수상

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浩) 여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김태경)가 수여하는 '한국교회 평화선교사'의 첫 수상자로 내정됐다.



환경정의의시민연대 8주년

원경선(元敬善) 환경정의의시민연대 이사장은 15일 오후 6시 성곡관에 6백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8주년 기념식 및 오후의 밤행사를 한다.



인터넷 콘텐츠 산업 논의

강용식(康容植) 21세기 방송연구소 이사장은 17일 오후 2시 한국방송위원회에서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

정기희(鄭基喜) 한국장애인연회회장은 15, 16일 이틀간 교육문화회관에서 '2000 전국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를 연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장학금

윤장순(尹長順) 우당장학회 이사장은 17일 오후 2시 우당기념관에서 우당이화영 선생 88주기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6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벤처경영 MBA 과정 협약

류병진(柳炳鎭) 명지대 총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을출범사 총장실에서 한국국제총합계산원과 벤처경영 MBA 과정의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초고층 실내환경' 세미나

권광문(權光文) 삼성중공업 대표(대표)한국공기청정협회장은 17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초고층 실내환경 및 클린룸 기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건설산업 변화 대응책 모색

홍성수(洪性洙)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16일 아미기호텔 그라나다홀에서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연다.



“도둑질”로 번 돈 보람있게 쓰고 싶었죠

해킹대회 상금 1만달러 불우이웃돕기에 내놓은 오태호·정정화씨

“도둑질(?)”로 번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두 명의 젊은이.  
지난 6월 열린 올림픽에 카이스트 국제해킹대회에서 3위를 차지해 받은 상금 1만달러를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한 ‘더 베스트 팀’의 오태호(吳泰浩)·정정화(鄭正和)씨들이다.



이들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자체 제작 보안프로그램을 무장한 네트워크에 침입, 암호를 해독하는 일이 우승을 차지하는 이번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2위팀보다 먼저 2단계를 통과했지만 대회종료 시점에 서버를 장악한 일이 우승자가 되는 규칙 때문에 3위에 머물렀고, 1단계를 통과한 팀이 없어 1위팀은 선정되지 않았다.  
“아쉬운 점도, 후회도 없어요. 그저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참기겠고 뜻하지 않게 상금 1만달러를 받게 돼 불우이웃돕기 상금으로 내렸을 뿐이죠.”  
이들은 “해커(Hacker)는 네트워크에 대한 공감을 품고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시스템에 침입한다”며 “과거를 목적으로 하는 크래커(Cracker)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리눅스의 “자유로움”에 빠져 있다는鄭씨는 유학을 하고 현재 와이즈 소프트웨어는 벤처기업에서 리눅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매일 20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낼 정도로 컴퓨터를 끼고 산다.  
“병역특례업체인 4DL에서 근무하는 뜻에는 일반 TV를 이용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1996년 세계 웹페이지 공모전 학교부문에 금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뜻에는 중앙일보 학교정보부(IIIE)운영팀의 일원인 ‘IE9119 봉사대’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보안등에 앞장서기도 했다.  
정보화의 선두에 서 있는 이들이지만 최근의 인터넷 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붐은 가뭄을 갖췄지 못한 상태에서 사냥자 수가 급증한 덕분에 이뤄졌습니디. 네트워킹과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상업적인 측면에서 대중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허점과 구멍이 많은 거죠.”鄭씨의 배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킹 강국이 된 것도 이러한 허점 때문”이라는 뜻에는 “컴퓨터 보안장치를 해두는 것은 집의 문단속을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음지에 숨어 있는 해커가 아니다”고 강변하는 이들의 꿈은 학교에 남아 연구활동을 계속하는 것,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만드는 것도 포함(鄭君)을 막 지난 두 사람의 단란 꿈이다. **글·사민·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공주요? 전혀 상상해 본 적 없어요”

‘102달마시안’ 주연 맡은 글렌 클로스

“시골에서 자랄 때 여동생과 함께 놀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양 상상한 적이요. 연기의 66%는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요. 공주요?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카우보이나 숲속에 사는 아주 가난한 소녀를 주로 상상했지요.”  
디즈니의 새 영화 ‘102달마시안’의 미국 개봉(22일)을 앞두고 13일 낮 뉴욕 리젠스 호텔에서 만난 이 영화의 주인공 글렌 클로스의 말이다.  
간소한 바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그의 부드럽고 오히려 말투는 그동안 그가 맡아온 역할에서 드러난 ‘공주병’의 징후와는 거리가 멀었고, 극중에서 보여준 광기어린 연기와도 사뭇 달랐다.  
‘102달마시안’은 전편 ‘101달마시안’의 필미에서 감옥에 갇힌 주인공 크루엘라(글렌 클로스 분)가 뇌에 충격요법을 받고 완전히 다른 신랄한 인간이 돼 출라나는 데서 시작된다.  
“멍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눈을 이렇게 크게 떴다”며 흥내를 낼 때야 비로소 극중 모습이 살아난다. 하지만 크루엘라는 이내 약한 본성이 깨어나 달마시안 가족으로 코트를 해 입으려는 ‘모피족’으로 퇴출가고, 영리한 강아지들과 대결



을 벌이다 밀가루 벌레와 돼 회덕에 들어가는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파국을 맞게 된다.  
1995년 토니상을 수상한 뮤지컬 ‘신선대토’ 등 연극 무대에서 탄탄한 실력을 다져온 연기와 배우인 그에게 이처럼 ‘스타일 구기’의 역할을 왜 맡았는다고 묻자 캐묻는 것은 부질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말마따나 ‘대체로 감독의 멋진 영화’보다는 ‘일단 맥이 오르면 온전히 배우의 것이 되는 연극’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번 영화는 크루엘라의 극단적인 성격 설정과 다채로운 의상 등으로 거의 연극무대처럼 느껴져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뉴욕·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co.kr>

올해의 ‘탑 헬리콥터’ 김주도 준위

매년 육군의 전투헬기 조종사 중 최우수 사수(射手)에게 수여하는 ‘탑 헬리콥터’에 제 1항공여단 103대대 소속 김주도(金周道·29)준위가 선정됐다.  
‘코브라’로 불리는 AH-1S 헬기 조종사인 김준위는 7년 동안 8백37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한 베테랑.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대(對)전차 미사일인 토(TOW)와 로켓트 사격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김준위는 16일 육군항공작전사령부(前作)연병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국방부장관상을 받는다.  
이에 앞서 육군 함장자는 지난날 16일부터 3주 동안 각 항공부대에서 선발한 48명의 정예 조종사가 참가한 가운데 제



2회 탑 헬리콥터 선발전대회’를 갖고 TOW와 2.75인치 로켓▶20mm 발칸▶7.62mm 기관총 등 무기 부문별 최우수·아간 공대공(空對空) 및 공대지(空對地)사격 대회를 실시했다. **2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창립 30주년 기념 리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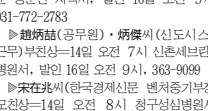
한국무역대외협회(회장 李成熙)는 14일 오후 6시 신라호텔 대니얼스홀에서 주한 외교사절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사건 왼쪽부터 이상욱(李相玉)전 외무부 장관·박길봉(朴吉奉)전 회장·미규연 두란 콜롬비아 대사·李善浩(李善浩)전 회장·김윤석(金允錫)전 주한 미 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윤석(金允錫) 기자**  
<kimyun@joongang.co.kr>

본사 내방  
▶최일홍씨(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신임  
▶김재만씨(기업은행 이사)신임

부 음  
▶曹在民(이씨아이 이사)·在得씨(현대증권 차장)·李正善(메리니얼드와이드 이사)·李翰宰(단국대 교수)부부상—13일 오후 1시 고대인양병원서, 발인 15일 오전 9시, 921-8899  
▶文翰奎(동의의료원장)·翰明(사립)·翰榮(서남비인더스터리 전무)·翰根씨(시바스캐티카케미칼스 이사)부부상—14일 오전 10시, 051-852-0298  
▶沈在鎭(대외경제정책연구원 회장)·在興(대한전선 근무)·在九씨(국방관리공단 근무)부부상—14일 오전 9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자택서, 발인 15일 오전 9시, 031-772-2783  
▶趙炳燾(공무원)·炳燾씨(신도시시스템 근무)부부상—14일 오전 7시 신촌세브란스병원서, 발인 16일 오전 9시, 363-9099  
▶宋在基씨(한국경제신문 벤처투자부장) 모친상—14일 오전 8시 청구성심병원서, 발인 16일 오전 8시, 357-4016  
▶李載義씨(영선대 대표)조모상—13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서, 발인 15일 오전 7시, 3410-6906

매카니가 前 주한 미대사 별세

올해 매카니가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0일 미국 애틀랜타 크로포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92세.  
고인은 1959~61년 주한 대사로 근무하던 중 4·19혁명에 이따가 8월 8시 경무대를 찾아가 이태리공관과 한시간 동안 비밀회동을 갖고 하야할 것을 선택했다. 그의 권유로 이재룡씨가 결심한 것은 유래한 일화다.  
미국 현지 대령으로는 처음으로 이태리공관의 한국 방문을 상사시키는 등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발휘한 고인은 6월 4일 미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로 영전했으며 주대만·중국·파키스탄 대사로도 활동했다.



“사람 사람”은 여러분의 사랑방입니다. 인물 동정·인사·부음 게재, 그리고 모임 취재는 원하시면 중앙일보 독자들에게도 연재하십시오.  
전화 751-5039, 팩스 751-5404, PC통신 천리안·하이텔·나우루·유니텔 go JANEWS, e-mail:opinion@joongang.co.kr

일본 아카데미 12개부문 석권! 작품상·감독상·각본상·남우주연상·남우조연상·아우주연상·촬영상·음악상·조형상·편집상·미술상  
블록버스터를 날려버릴 웃음이 온다!  
ON AIR  
Mr. International  
Mr. McDermott  
Mr. McDermott  
12월2일 대개봉  
픽도넛기 하이오션 사이사이드

5억불짜리 미스터리 SF 블록버스터  
그 명성 그대로 이것이 진짜 오스틴파워!!  
오스틴파워  
International Man of Mystery  
웃음의 스포츠(00)를 확장한다  
15일은 수능시험날! 18일은 오스틴 보는날!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  
코엔 영태 제작감독  
올 가을 테러전에 선정됨—  
“감동과 웃음이 있는 최고의 영화!”  
★KBS(1) 전선영화제 초청작! ★KBS(2) 부산영화제 초청작!  
11월18일 대개봉!  
15세이상관람가  
명보  
11월18일 대개봉!  
15세이상관람가  
시네코아  
씨티